불교계 각종 봉사상 수상, 보시꽃 활짝

여성폭력 상담해온 진원 스님 여성부 장관상

최근 불교사회복지인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불자 자원봉사자들의 자비심 넘치는 활동이 대외적으로 알려지면서 각종 봉사상 수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긴급전화 1366 경북센터장 진원 스님은 '2011년 성폭력추방주간'을 맞아 12월 1일 충무아트홀에서 개최한 '2011년도 여성폭력방지 유공자 시상식'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은 여성가족부가 여성권익 증진정책 평가 우수기관과 공무원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그간의 공로에 대해 표창하는 것이다.

진원 스님은 2009년 11월 센터장 소임을 맡아 여성인권보호를 위해 동분서주 발로 뛰고 있다. 피해여성들로부터 신고 전화가 들어오면 스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현장에 출동해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위기에 처한 여성들을 구했다.

진원 스님은 "이전에 개신교 법인에서 센터를 운영할 때 보다 긴급구호 사례가 평균 3배는 늘었다"며 "아무래도 비구니 스님이 직접 현장에 나가 적극 구호를 하니 피해여성들도 더욱 안심을 하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여성긴급전화 경북1366센터는 2009년 11월 직지사복지재단이 인수받아 운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담 분야는 기독교 전담 분야라고 할 정도로 개신교와 가톨릭의 활동이 활발하다. 반면 불교계는 불교상담개발원이 운영하는 자비의 전화와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외에는 전무할 정도로 활동이 저조하다.

진원 스님은 "가톨릭·개신교에서는 이미 20~30년 동안 여성폭력상담센터를 운영해 그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그러다 갑자기 경험도 없는 불교계가 센터를 맡게 되니 반대세력도 많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래서 아동·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캠페인 등을 더욱 활성화 시켜 활동영역을 넓히고 어려운 이해관계가 놓여있어도 직접 발로 뛰며 다가갔다"고 말했다.

진원 스님은 "앞으로 가정폭력상담 전문교육을 이수하는 후학을 양성하는 것이 계획"이라며 "스님들도 인권상담분야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조계종자원봉사단(단장 종선) 소속 윤형주, 김종숙씨가 '제6회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 2011 전국자원봉사자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아동·여성폭력 근절 캠페인을 벌이는 진원 스님


윤형주 자원봉사자


김종숙 자원봉사자

윤형주씨는 71세의 고령의 나이에도 2007년부터 지금까지 청운양로원, 쌍문동 노인복지센터,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등 지역복지시설에서 정기적으로 수지침과 경락요법 자원봉사를 해 지역 어르신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해왔다.

윤씨는 "봉사활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그분들을 통해 배우는 것이 많아 보람을 느낀다. 또 신체적 고통을 받는 분들의 고통을 덜고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 극락세계를 만드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내 생이 다 할 때 까지 봉사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숙씨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립어린이병원과 승가원장애아동요양시설에서 장애아동 대상 목욕봉사활동을 한 차례도 빠짐없이 진행해 왔다.

김씨는 "매주 1회 봉사활동을 한다. 처음에는 특수장애를 가진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는데 요즘에는 내가 더 그들로부터 배울 것이 많고 감사할 것도 많다"며 "앞으로도 시간적 여유가 닿을 때까지 꾸준히 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anmail.net


"극락왕생하소서"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등반 중 10월 18일 실종된 故 박영석 대장과 산악인 강기석, 신동민 대원의 49재가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렸다. 49재는 유가족과 산악인 엄홍길 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한 분위기에서 마련됐다. 49재는 살풀이, 봉송의식, 소전의식 등으로 진행됐다. 사진은 유가족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산악인 엄홍길 대장의 모습.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불교계 사회적 기업 경쟁력 높이자

15일, 조계종복지재단 미래사회복지포럼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과 정부 지원이 증가하는 가운데 사회적 기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는 포럼이 열린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종선)은 12월 15일 오후 2시 전법회관 6층에서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재단과 정부지원사업의 연계방안'을 주제로 미래복지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은 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 정부지원사업의 세부지원정책과 인증요건 등에 대한 개괄적 제시, 우수 사회적기업의 사례소개 등이 진행된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anmail.net


흥국사 지역아동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사진은 7일 개소식 기념촬영모습(뒷줄 오른쪽에서 4번째가 대오 스님)

고양 흥국사, 아동복지 본격 시작

행신동에 흥국 지역아동센터 설립

고양 흥국사(주지 대오)가 소외계층 자녀를 위한 센터를 마련해 지역 복지 활성화에 나섰다.

흥국사는 12월 7일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서정마을 1단지 상가 2층에 흥국지역아동센터(센터장 양현)를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개소식에는 대오 스님, 최성 고양시장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대오 스님은 "지역 저소득 가정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게 지난 6월 아동센터 신고를 하고 5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정식으로 문을 열게 됐다"며 "센터에서 공부하고 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고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대오 스님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천수천안 불교자원봉사단은 13일 고양시 독거노인 200세대에 쌀을 배포했다. 또 이날 열린 송년법회 및 회장 이·취임식에서 대오 스님의 연임이 결정됐다. 이나은 기자



신흥사 군법당기금 전달 화성 신흥사(주지 성일)가 논산 군법당 건립 지원을 위한 자비나눔기금을 전달했다. 성일 스님은 12월 6일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을 방문해 기금 1000만원을 전달하고 군포교 발전을 위해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승 스님은 "십시일반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템플스테이 UCC공모전 시상식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지현)이 12월 6일 제1회 템플스테이 UCC공모전 시상식을 봉행했다.

이번 템플스테이 UCC공모전은 서승욱씨의 '녹희의 템플스테이'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이밖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예은 씨는 150만원, 우수상 정다은, 전희재. 김하나에게는 70만원, 장려상 이동준 천병록 서주찬 배민호 김필종 박상우에게는 40만원이 각각 수여됐다. 지현 스님은 "공모전을 통해 배출된 수상작들은 향후 전 세계인들의 템플스테이를 만나는 주요한 창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100자 뉴스

조계종 강정마을 평화법회
조계종 종무원조합과 붓다클럽 정방회, 포교사단 등 불교 단체들이 12월 3일 제주도 강정마을에서 열린 '평화를 위한 촛불문화제'에 참석했다. 이들은 또 4일에는 마을 주민, 강정마을을 지키기 위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법회를 열고 강정마을의 평화를 기원했다. 박기범 기자

유심 문학의 밤 행사
격월간지 '유심'이 12월 23일 오후 6시 강남구 신사동 유심 아카데미 세미나실에서 '2011 유심 문학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유심 선정 올해의 좋은 시'에 선정된 홍종화·김강호 시인의 시상식과 친교모임이 있을 예정이다. (02)739-5781 이나은 기자

불기협 이강식 신임회장 선출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조용수, 이하 불기협)가 신임 회장에 이강식 금강신문 취재부 차장을 선출하고 선원빈 기자상 대상에 주간불교 김치중 기자를 선정했다. 불기협은 12월 6일 수송동 엘마레따에서 불기2555년 한국불교기자협회 총회를 열었다. 총회에는 각 회원사 및 임원들과 포교원장 지원 스님, 생명나눔실천본부 일면 스님, 설법연구원장 동출 스님, 태고종 열린선원장 법현 스님 등이 참석했다. 박기범 기자

설법연구원, 불교활동가 지원금 전달
설법연구원(원장 동출)은 12월 6일 템플스테이 3층 문수실에서 제8회 불교활동가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동출 스님은 간헬라 산스시리 스님(구미마하이주노동자쉼터 센터장)과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 한주영 불교여성개발원 사무처장, 홍지연 대불련 지도위원장 등 4명에게 각각 200만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이나은 기자

봉

사단법인 대한불교삼보종 합종선포식

축

(사)세계불교지도자연맹 공동선포

취 지 문

삼보에 귀의하오며. 법체강령을 축원드립니다.
새 시대를 열어갈 올바른 사상과 이념으로 흩어진
불심을 바로잡는 신성한 한국불교 통합을 서원합니다.

■ 첫째 : 1차 5개 종단통합을 만천하에 공포하며.

■ 둘째 : 세계불교지도자연맹 공동체 선포식을 통하여
국권불교를 지키는 불교연맹의 힘을 강화하며.

■ 셋째 : 군소 종단은 똘똘뭉쳐 단일체제로 고려불교 정신을 되살리며.

■ 넷째 : 신개혁의 단일 불교종단 대통합을 선포합니다.
뜻을 같이하실 종단 어른스님은 승가화합을 위하여 불문을 여오니
사부대중의 동참을 초청하오며 시방에 선포합니다.

■ 식 순 :
1부. 사단법인 대한불교삼보종 제19주년 합종선포식
(사)세계불교지도자연맹 공동선포
2부. 관) 한국새생명복지재단 연합개원식 및 어르신 문화공연

■ 일 시 : 2012년 1월 12일 목. 오후 2시

■ 장 소 : **김해시 문화체육관**(실내) ☎055)326-4150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449번지

■ 후 원 : 사)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사)세계불교지도자연맹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사)한국청소년보호육성회
관)한국새생명복지재단. 불교TV. 한국불교재단. 현대불교신문.
법보신문. 정도일보. 전국일붕문도회. 전국교정교화법사단.

■ 사무소 : 경남 김해시 삼정동 17-10번지 (3층) ☎055)338-0089